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도자료	2015. 11. 16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우성규 사무관 박유리 (Tel. 044-200-2134)
즉시 사용바랍니다.			

황교안 국무총리, 프랑스 테러 희생자 조문

- 프랑스 테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, 프랑스 국민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 전달
- 황 총리, “테러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”
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16(월)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하여 지난 11.13(금) 발생한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관련 조문을 하였다.
- 황 총리는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에게 “이번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, 프랑스 국민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”고 하였다.
- 황 총리는 “테러는 있어서도, 일어나서도 안 되는 반인륜적 행위”라고 하며, “테러 근절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며,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”이라고 하였다.

-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는 “황 총리의 조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”고 하며, 황 총리의 조문에 대한 올랑드 대통령과 발스 총리의 감사의 뜻도 전하였다.
- 또한, 이번 황 총리의 조문이 “양국의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좋은 징표이며, 양국간 우정과 연대의식의 표시”라고 하며, “한국 정부의 위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사의를 표하였다.
- 황 총리는 “다시 한 번 슬픔에 젖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, 프랑스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”고 하였다.

※ 첨부 : 주한 프랑스 대사 약력

참고

주한 프랑스 대사 약력

성 명	○ 파비앙 페논 (Fabien PENONE)	
출 생	○ 1968년 10월 19일 (47세)	
학 력	○ 리옹고등상업학교 (재정학) ○ 파리정치대학 (공공행정학) ○ 국립행정학교	
경 력	○ 1997-2000 외교부 북아프리카·중동국 근무 ○ 2000-2001 외교부 외교정책 및 공동안보국 근무 ○ 2001-2002 주EU대표부 1등서기관 ○ 2002-2005 주EU정치안보위원회 차석대표 ○ 2005-2007 주영국대사관 2등참사관 ○ 2007-2010 외교부 유엔·국제기구·인권·불어권국 정책과장 ○ 2010-2012 외교부 EU국 EU대외관계과장 ○ 2012-2015 대통령실 외교보좌관 * 아메리카·러시아·발칸·동유럽(EU제외)·카프카스·중앙아시아 및 EU 대외정책 담당 ○ 2015.9월-현재 주한프랑스대사	
가족사항	○ 기혼, 자녀 4명	
구사 언어	○ 프랑스어, 영어, 독일어	